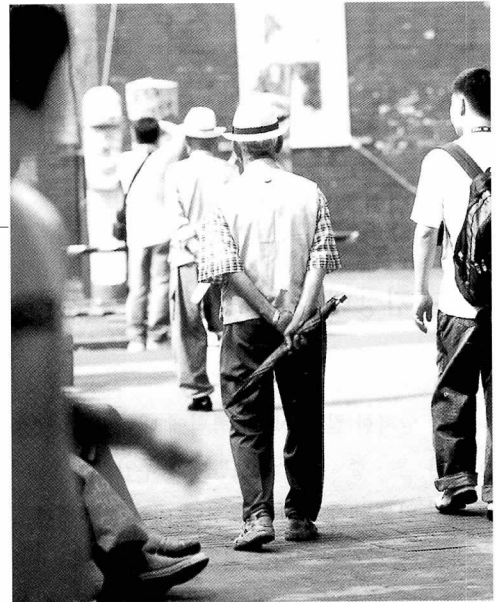


# 나이들은 욕구와 능력과 당위의 조화로운 균형

나이드는 것에 대한 철학적 성찰

엄정식 | 서강대 철학과 교수

나이드는 것은 경험을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그 경험의 질을 높이고 그것의 의미를 심화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하이데거가 말했듯이 나이드는 것은 인간의 한계 상황을 실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분수를 잘 알고 죽음까지도 담담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야말로 '나이들'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



자기 분수를 알고 죽음까지도 당연한 현상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나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서 일정한 기간 동안 살다가 죽게 마련이다. 어떤 사람은 자연적인 수명을 다 살다가 죽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 중도에 삶을 마감하기도 한다. 물론 여기서 산다는 것은 “나이가 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생물학적으로 성장하다가 점점 더 노쇠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간의 삶이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숨을 쉬거나 먹고 마시며 배설하고 잠을 자는 것을 의미하지 않듯이 나이드는 것도 이런 생물학적 과정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삶의 의미 그 자체와 깊이 연관돼 있는 것이다. ‘나이들’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나이들은 경험의 질을 높여가는 것

나이드는 것은 우선 경험을 좀더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경험을 한다는 것은 그냥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더 많이 겪고 더 많이 보거나 듣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매우 오랜 세월이 걸쳐서 아주 많은 것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닌 의미를 간파하고 다시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그것을 ‘경험’했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관광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가령 유럽을 여행할 때 어떤 사람은 로마의 콜로세움이나 파리의 개선문 혹은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다소 특이한 건축물을 구경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건축물이 서게 된 동기나 내력 혹은 그것이 지닌 예술적 측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종류의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거기서 그는 고대 로마의 검투사와 군중들을 상상을 통해서나마 만나보게 될 것이고 나폴레옹의 야심과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

게 될 것이며 영국인들만이 지니고 있는 특유한 신앙의 한 형태를 실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잡다한 경험을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그 경험의 질을 높이고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삶의 깊이를 더해간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실제로 많은 세월을 살았어도 ‘나이가 든’ 사람답게 행동하지 않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아직 젊은이임에도 불구하고 ‘젊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역설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진정한 의미로 나이가 든다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오히려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오래 지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 성숙한 나이들과 미숙한 나이들

관광하듯 삶을 체험하는 동안 사람들은 은 속절없이 나이가 들게 마련이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몸이 쇠약해지고 신체적 기능이 약화되며 때로는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또 의욕도 있으나 여의치 않음을 깨닫고는 좌절과 절망을 느끼게 되기도 한다. 그런데 바로 이런 시점에서 나이들은 서로 판이하게 다른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스스로 한계를 느끼고 생리적인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고, 다른 하나는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무리를 범함으로써 미숙한 태도를 드러내는 경우다.

나이가 들수록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은 미리 준비함으로

써 많은 것을 보는 관광객처럼 경험의 폭을 넓힐 뿐 아니라 그 질적 수준을 높일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며, 동시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할 뿐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식별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해서 그는 자기가 참으로 원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해야 하는 것만을 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으로 성숙해간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미숙한 사람은 치밀한 계획도 없이 피상적으로 경치나 구경하러 나서는 관광객과 같다. 그는 비록 오랜 세월 동안 잡다한 경험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의미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함으로써 결코 나이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한다. 그는 나이가 들어도 지나친 욕심을 버리지 못함으로써 여전히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되면 하는 일이 대부분 실패로 끝날 뿐 아니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마련이다. 사실 성인병이란 자기의 나이에 걸맞지 않게 과음이나 과식 혹은 과로함으로써 생기는 병인데 결국 그 궁극적인 원인은 과욕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나이만큼 늙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바람직하고 또 어려운 일인지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어떤 사람이 미숙한 채로 나이가 들면 그 피해가 자기 자신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사람은 경험의 폭이 좁고 깊이도 없기 때문에 바람직한 신념체계나 가치관을 지니고 있지 못함에도 그것을 정당화하고자 하며 젊은 사람들에게 독선적이거나 권위주의적으로 강요한다. 혹은 그런 태도가 무시되기라도 하면 강압적인 태도로 돌변하며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미숙한 채로 나이든 사람이 많아질 경우에는 사회 자체가 건전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 한계상황 받아들이는 것이 나이들의 특징

흔히 나이가 든다는 것은 살아갈 시간보다 살아온 시간이 더 많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나이든 사람에게서는 미래에 대한 열정보다는 과거를 회상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삶에 대한 희열보다는 죽음에 대한 관조가 더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새삼스럽게 같은 시대를 살아온 동년배와 더욱 돈독한 연대의식을 나누게 되고 남은 생애를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한다. 그런 공감대가 동료나 개별적인 이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추상적이지만 인류에 대한 연민을 느끼게 되는 것도 바로 이 시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죽게 마련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실감하고 말년에 바로 그런 점을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이데거는 인간의 한계상황을 가장 심도 있게 파헤친 철학자라

고 할 수 있다. 그는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지만 아무도 나의 죽음을 죽어줄 수 없다”고 갈파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삶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돌보거나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는 있어도 나 자신의 삶을 살아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사실을 실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자기 분수를 잘 알고 죽음까지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야말로 ‘나이들’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생리적으로 불가피한 현상이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욕구를 억제하고 자기 능력의 한계를 알며 동시에 자유가 욕구의 무절제한 발산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는 순간에 비로소 경험되는 것임을 실감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공자는 가장 바람직하게 자기의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가장 이상적으로 자유를 누렸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70세가 됐을 때 욕구에 따라 행동했으나 범도에 어긋남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욕구와 능력과 당위가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도록 살아간 사람이며 동시에 가장 바람직한 ‘나이들’의 표본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하나의 엄연한 사실이면서 당위이기도 하다. 살아 있는 생명이라면 무엇이든지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게 마련이지만 한 인간으로서 사람답게 나이가 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즐겁고 보람있는 여행을 시도하는 관광객처럼 치밀한 계획과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마치 여행을 많이 해본 사람이 반드시 바람직한 여행객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단순히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의미 있는 경험을 쌓았다던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다.

바람직한 삶을 살고 의미 있게 늙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인생의 계획을 먼저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그 계획이 하나씩 실현됐다고 느낄 때 나이가 든다는 것은 죽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욱 구성지게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생물학적으로 나이든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장애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인간에게는 생물학적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

**엄정식** 교수는 서강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미시간대에서 인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강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지혜의 윤리학》 《철학이란 무엇인가》 《분석과 신비》 《자아와 자유》 《당신 일기》 등을 펴냈다.